



韓国と日本の 掛け橋になって

大仙市男女共同参画・交流推進課国際交流員
劉 焜永
ユ・ウギョン

人生で最も充実した1年

自治体国際化フォーラムのJETの広場に国際交流員としてコラムを書いてくださいとの依頼を受けていろいろ悩みました。なぜかというコラムに何を書けばいいのかわけではなく、むしろ1年間私が経験した数多くのことの中で、何を取り上げて書けばいいのかという悩みでした。国際交流員として過ごした1年は楽しいこと、難しいこと、うれしいこと、そしてつらいことも悲しいこともあり、今までの人生で最も充実した1年間を過ごした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と思います。

国際交流員になるまで

韓国からJETプログラムに参加するには、二つの高いハードルを乗り越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まず、在韓国日本大使館が行う筆記試験です。一次筆記試験は日本と韓国の言葉から文化、歴史、最新時事常識まで多岐にわたる問題が出てきます。実に広範囲での勉強が必要ですが、試験参考書はありません。筆記試験の狭き門をくぐると、面接試験という壁が立ちはだかっています。面接では経歴や国際交流員になるために何を準備したのか、心構えなどについて質問されますが、一番難しい質問は「あなたはなぜ国際交流員という道を選びましたか」という質問でした。私はこう答えました。「近くても遠い、日本と韓国の間を自分の手でつなげたい」と。それからはや1年、私は、そのときの答えに恥じない交流員になったのか、自分に聞いてみたいと思います。

秋田県大仙市の国際交流員になって

私は秋田県の大仙市という静かな所に配属されました。人口は約9万人、面積は約870km²…との固い説明は要らないと思います。私が今まで住んでいた韓国のソウル市より広いけれど、人口はソウルの100分の1にもあたらない大仙市。主な産業はお米を作ることで、家から1、2分離れた所に広々とした田んぼがあります。大混雑なソウルから来た私は窓を越えて聞こえてくるカエルの鳴き声に毎日癒やされています。

私の仕事は大きく二つに分けられます。一つは友好交流都市である韓国の唐津市との交流に関する仕事と、もう一つは大仙市民向けの異文化理解講座です。



友好交流都市韓国の唐津市役所を 異文化理解講座で韓国の伝統衣装訪問
「ハンボク」を紹介

韓国人はお誕生日に〇〇を食べる？

韓国なぞなぞクイズから始まる私の講座は、韓国の位置から面積、人口、また大仙市から韓国の首都ソウルまで何時間かかるのか、韓国の国旗、国歌、最近ドラマでよく見られる韓国の伝統衣装の紹介、韓国人は普段何を食べてどこに住んでいるのか、また秋田のように大雪は降るのか・・・などについて「立て板に水」のように説明しま



小学校で韓国について説明

す。秋田から韓国まではわずか2時間半しかかからない隣の国ですけど、お互いにまだ分からないことが多いです。最近、日本のスーパーでも本場に負けない味のキムチが簡単に買えますが、韓国人が1日3食欠かさずキムチを食べると説明すると、皆ビックリしてしまいます。それでは先のクイズ、韓国人がお誕生日に必ず食べる食べ物は何でしょう。正解はミヨックック(ワカメスープ)です。なぜか理由が聞きたい方は大仙市にいらっしゃってください。手作りのミヨックックを出し、丁寧にお話します。

韓国文化院と一緒に何でも韓でも

現在、日本各地では世界40か国から来た約4,500人の交流員が異文化交流のため活躍していますが、われわれ韓国の国際交流員は韓国文化院と組んでイベントを行うこともあります。韓国の国技テコンドー体験教室、K-POPが好きな方



韓国文化院と一緒にいったテコンドー体験教室

の挑戦舞台K-POPコンテスト、話してみよう韓国語大会などのイベントは韓国交流員として自慢したい楽しいイベントです。また、これらは、今まで国際交流員が地域住民と一つになって異文化理解に向けて頑張ってきたことを共有できるかけがえのない大切な場にもなりますので、積極的にイベントを誘致、またはサポーターとして参加しています。

韓国と日本、その特別な関係の中で

交流員としてのこの1年間、楽しいことばかり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2012年8月、私が配属された大仙市と友好交流を結んでいる韓国の唐津市との交流が、国家レベルのさまざまな出来事により、一時的に中止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一言では説明できませんが、やはり韓国と日本の間柄は特別だとあらためて実感させられました。しかし、交流再開のその日まで韓国の交流員として大仙市で自分ができることを一所懸命に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JETプログラムの交流員になってから2年目、私は韓国と日本をつなぐ微力ながら丈夫な掛け橋になるために、頑張っています。皆様、応援をお願いいたします！

韓国ソウル出身。大学ではデザインを専攻。韓国で広報関係の仕事をしていた際に、遅ればせながら日本語や日本文化を習った。今は秋田県大仙市の国際交流員として2年目に入ったところ。秋田に来て1年目の冬、1メートル以上積もる雪に驚いて、もともと大好きだった冬が



少し怖くなった。今の仕事は前職と同じ「広報」ということと、得意の料理関係の依頼が多いため、自信を持って何でも韓でも頑張っている。日本での生活も仕事も初めてで、冒険のような毎日を楽しんでいる。

<http://www.city.daisen.akita.jp>
daisencir@gmail.com

劉 煜永

한국과 일본을 잇는 작지만 튼튼한 다리가 되어

유욱영

인생에서 가장 충실한 1년

자치체 국제화 포럼 속 제트의 광장에 제트프로그램의 국제교류원으로서 칼럼을 써달라는 의뢰를 받았을 때,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은 무엇을 쓰면 될까가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그 많은 일 중 무엇을 쓰면 좋을까를 고민할 만큼 교류원으로서의 첫 1년은 즐거운 일, 어려운 일, 기쁜 일 그리고 힘든 일과 슬픈 일까지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찬 한 해였습니다.

국제교류원이 되기까지

제트프로그램의 교류원이 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친구들은 무엇을 준비할까요? 한국의 교류원 친구들은 두 가지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일본에서 국제교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재한일본대사관에서 실시하는 필기시험을 치룹니다. 일본과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 그리고 최신 시사상식 까지, 그야말로 폭 넓은 상식을 테스트하는 만만치 않은 시험입니다. 범위는 넓지만 수험서도 학원도 없습니다. 1차 시험의 벽을 넘으면 이번엔 2차 면접시험이 기다립니다. 면접에서는 과거 경력이나 학력, 무엇을 할 수 있는 등의 문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일 답하기 어려웠던 것은 < 왜 국제교류원이라는 길을 택하였느냐 >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가깝고도 먼 한국과 일본의 사이를 제 손으로 직접 이어보고 싶어서 라고 답하였습니다. 교류원으로 발탁되어 1년, 저는 그때의 대답에 부끄럽지 않은 교류원이 되었을까 자문해 봅니다.

아키타현 다이센시에 소속되어

교류원이 되어 부임한 곳은 아키타현의 다이센시라는 조용한 곳입니다. 인구는 약 9만 명, 넓이는 약 870km² 의...라는 딱딱한 소개는 굳이 필요 없겠지요. 제가 평생 살아온 서울보다 더 넓지만 인구는 그 1/100인 다이센시. 시끄러운 서울에서 온 저에게 이곳은 고요한 천국과도 같습니다. 이곳은 쌀을 주로 생산하는 동네라서 집을 벗어나 1~2분만 걸어가면 바로 드넓은 논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름에는 창문을 열면 개구리 울음소리가 시원하게 들려 오구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다이센시에서 저는 크게 두 가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호교류도시인 한국의 당진시와의 교류업무 지원과 다른 하나는 다이센시민을 위한 이문화 이해강좌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일에 꼭 먹는 것은?

한국에 관한 아리송한 퀴즈로 시작되는 저의 강좌는

한국의 위치와 넓이와 인구, 또 이곳 다이센시에서 한국의 수도 서울까지 몇 시간이 걸리는지, 한국의 국기는? 한국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고 무엇을 먹으며 어떤 집에서 사는지, 한국도 아키타처럼 눈이 많이 오는지...를 물 흐르듯이 설명합니다. 한국은 일본에서 두 세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정말 가까운 이웃나라지만, 아직 서로 잘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젠 일본의 마트에서도 제법 본고장의 맛이 나는 김치를 손쉽게 살 수 있지만, 한국사람들은 하루에 세끼 전부 김치를 먹는다 라는 설명에는 다들 깜짝 놀란답니다. 위의 퀴즈의 정답이 궁금하시다고요? 한국사람들은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답니다! 이유가 궁금하신 분은 다이센시에 놀러 오세요. 제가 직접 만든 미역국을 대접하며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문화원과 손잡고 난데모 칸데모!

현재 일본에는 세계 40여 개국에서 온 약 4,500여 명의 국제교류원들이 자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각지에서 활약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한국 교류원은 도쿄와 오사카에 있는 한국문화원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국기 태권도 체험교실을 시작으로 한국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의 도전무대 K-Pop 컨테스트, 한국어를 잘 못해도 한국어로 참가할 수 있는 말해보자 한국어 컨테스트 등 이들 행사는 한국 교류원으로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한 문화교류의 성과를 자랑 할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자리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교류원으로서 첫 1년, 즐거운 일만 가득해도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2012년 8월, 제가 소속된 다이센시와 우호교류중인 한국의 당진시가 두 나라의 제반 사정에 의해 교류를 잠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칼럼에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역시 한국과 일본은 참으로 특별한 사이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류가 재개되는 그날까지, 한국 교류원으로서 다이센시에서 더욱 열심히 한국문화를 알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좋은 계기로 삼으려 합니다.

교류원으로서의 두 번째 해, 저는 지금 한국과 일본을 잇는 작지만 튼튼한 다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을 읽어주신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